



해외양돈뉴스

- 홍보부 -

미국 돼지 사육두수 증가로 돈가 대폭 하락 예상

미국의 양돈농가들은 향후 18~24개월내에 사육두수를 현재의 40% 이상 확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각 주에서 생산규제가 점차 엄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육확대가 불가능할 때를 대비하여 사육두수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미쥬리 대학 농업경제학 교수인 글렌 그림스씨에 의해 밝혀졌다. 그림스 교수는 금년도 생체 평균 가격은 100kg당 77.2~81.6달러의 낮은 가격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계층은 연간 생산 5만~50만두의 중간규모 생산자라고 추측하고 있다. 만약 사육두수가 40%가 증가되면 이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해 생체가격은 100kg당 66.2달러를 넘지 못해 업계의 80%가 적자 상태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그림스 교수는 경고했다.

일본에서 돼지고기 판촉 활발히 전개

미국은 일본에서 미국 육류의 우수성과 이미지 변화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다.

미국 식육수출연합회(USMEF)는 6월말부터 개최하고 있는 '안심할 수 있는 품질의 US 일품포크 관촉행사'의 일환으로 8월 하순부터 9월에 걸쳐 지방 TV방송국, 잡지사 등과 슈퍼마켓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요리세미나를 연속해

서 개최하였다. 또한 이와함께 머천다이싱(merchandising) 세미나도 '양관점용 추동상품화 제안'을 주제로 동경, 오사카, 후쿠오카 등지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금년 냉장돼지고기 수입 10% 증가

일본의 냉장돼지고기 수입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반면, 냉동돼지고기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냉장돼지고기 중심으로 수출체제를 개선하는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은 금년들어 8월말까지 총 311,748톤의 돼지고기를 수입, 지난해 동기보다 14.3%나 수입량이 감소했다. 이 기간중 냉동육 수입량은 218,578톤으로 21.8%나 급감했다. 이같은 수입 감소 현상을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가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냉장돼지고기 만큼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수입량이 10%나 더 늘어나는 현상을 보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일 돼지고기 수출체제를 냉장육 위주로 과감히 전환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지난 8월말까지 일본은 냉장육 93,170톤, 냉동육 218,578톤, 총 311,748톤의 돼지고

<표>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실적(1~8월)

(단위 : 톤)

구분	미국	덴마크	한국	캐나다	멕시코	합계
냉장육	67,537	260	10,782	12,737	983	93,170
냉동육	36,638	71,631	45,497	25,571	19,050	218,578
합계	104,175 (119.0)	71,891 (66.6)	56,279 (181.4)	38,308 (110.4)	20,033 (141.9)	311,748 (85.7)

주 : 일본 통관실적, ()은 전년비 %

기를 수입했는데, 이는 작년 동기보다 14.3% 감소한 양이다.

전업 양돈농, “분뇨처리 시설 비용이 최대 과제”

일본의 전업양돈농가들은 분뇨처리문제와 관련, 가장 큰 문제점으로 처리시설 설치비용이 높은 것을 지적하고, 운전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일본의 중앙축산회는 최근 양돈농가들을 대상으로 분뇨처리방법 등을 주제로 시설설치 현황, 문제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분뇨처리에 관한 문제점으로는 처리시설 설치비용이 높다가 84.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처리시설의 운전비용이 높다가 64.2%로 비용면에서의 문제점 지적이 많았다. 그밖에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 24.8%, 유지관리기술이 어렵다 20.4%, 퇴비 인수처 확보가 어렵다 14.6%의 순이었다.

대만 돼지가격 사상 최고 기록

대만의 돼지가격이 급등세를 지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지에 따르면, 대만의 돼지 100kg당 생체시장가격이 8월 31일 현재 7,107 위안(한화 약 285,000원)으로 과거 최고치였던 96년 6월 4일의 7,098위안(한화 약 284,700원)을 상회해 사상 최고가격을 보이고 있다.

97년 3월 구제역 발생이후 하락했던 돼지가격은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 금년 7월 첫째주에 4,000위안(한화 약 164,400원)이었던 것이 7월 말에 5,000위안대(약 200,500원), 8월 중순에 6,000위안대(약 240,600원)로 1개월 사이에 50% 가까이 상승했다.

EU 돼지고기 민간재고 보조 발동 결정

EU돈육관리위원회는 9월28일부터 돼지고기의 민간재고에 대한 보조를 발동하는 것을 결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유럽연합(EU)에서는 최근 돼지고기 수급완화에 따라 시장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책으로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돼지고기의 민간재고를 촉진하고, 시장유통의 억제와 수급의 개선을 달성할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에 대상이 되는 재고량은 7만톤 이내이며, 보조금의 대상으로 계약할 돼지고기의 재고기간은 4개월, 5개월, 5~6개월이다. 참고적으로 EU의 9월 두 번째주의 돼지 지육 가격은 100kg당 108 ECU(약 17만4천원)인데, 이 가격은 97년 9월의 지육가격 175 ECU(28만7천원)에 비해 40%나 하락한 수준이다. 이렇기 때문에 8월부터 수출보조금 인상조치가 취해졌다.

멕시코 98년 돼지고기 수입 5만톤, 소세지용 원료돈 수요증가

멕시코의 경제회복에 따라 돼지 사육수 감소가 완만해지고 있다. 95년 1월의 1천251만두를 최고로 감소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97년 1월에는 1천20만두로 전년비 8% 감소하고, 98년 1월은 997만두 감소로 생산자 수익이 좋아져 전년비 2% 감소에 그쳤다.

경제회복에 의해 98년은 돼지고기를 비롯 축산물들의 소비가 생산을 상회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돼지고기는 98년에 2만톤의 소비초가가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98년도 돼지고기 수입량은 소비부족분 2만톤과 수출량을 합하여 약 5만톤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증가분은 대부분 국내 소세지 제조용

원료육 수요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돼지고기 수입선은 거의 전량 미국이다.

러 '98 돼지고기 수입 47만톤 예측, 소비의 25% 수입에 의존

자유경제체재후 돼지 사육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러시아는 97년~98년 들어 사육두수에 대비한 도축비가 개선되기 시작하였으며, 97년 사육두수가 전년비 14%감소, '98년 13% 감소 예상, '99년은 동 6%감소(100만두)가 예상되는 등 생산효율이 높아지고 있어 생산력의 회복이 엿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비에 비해 생산량이 부족한 러시아는 축산물의 수입의존율이 높으며, 세계 2위의 돼지고기 수입국으로써 '98년에도 중국, 미국, 덴마크, 폴란드 등에서 약 47만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러시아 전체 돼지고기 소비량의 24%를 차지하는 양이다.

네덜란드 돈육가격 하락세 지속, EU에 대러시아 수출 지원금 인상요청

네덜란드는 유럽연합(EU)내 돈육가격의 하락세가 계속됨에 따라 유럽농업장관인 Franz Fischler에게 러시아가 수입을 다시 시작할 경우 대러시아 돈육수출을 위한 지원금 인상과 그 시기까지의 전면적인(100%) 돈육비축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네덜란드의 돈육가격은 사상 최저 상태로, 사육업체는 생산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팔고 있는데, 예를 들어 어린돼지 가격은 9월11일 현재 30길더로 또다시 2길더 하락되었으나, 실제 그 생산가격은 90길더에 달한다. 또한 돼지고기 가격은 지난 2월 kg당 2.80길

더에서 현재 1.77길더에 거래되고 있다.

Apotheker는 이와같은 현상의 주요인을 러시아 시장의 폐쇄와 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한 수출감소, 또한 돈콜레라로 인한 EU내 전통적 돈육수출시장의 폐쇄등을 들고 있다.

덴마크 2대 돈육 도축업자 합작

덴마크의 최대 2개 돈육 도살업체인 Danish Crown 과 Vestjyske Slagterier 가 합작하게 됨으로서, 이 그룹은 덴마크 돈육도살업계의 80%를 장악하게 되었다(도살량 15~16백만 마리). Danish Crown은 이미 EU 최대의 돈육도살업체였으며, 제3위 업체 Vestjyske Slagterier와 합쳐짐으로써 EU전체의 80%를 차지하게 되었다(제2위 Dumecco : 약 4%).

돈육시세 하락이 합작의 주요인이며, 효율적인 경영방법으로 양돈가들에게 예전보다 많은 이익금이 돌아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Danish Crown은 12개, Vestjyske Slagterier는 7개의 도살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Jutland에 위치하고 있다.

태국 공급 감소로 돼지고기 가격 회복

태국은 '97년 9월부터 바트화의 하락으로 40 바트(140엔:1바트=3.5엔)를 넘던 생돈 1kg당 전국평균 출하 판매가격이 '98년 1월은 29바트로 최저가격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가격은 농가판매가격이 38 바트, 자돈가격은 900바트, 도매가격이 51바트로 회복하고 통화가치 하락 이전 수준으로 되 돌아왔다. 이런 가격상승은 수요증대와 통화위기에 따른 양돈농가의 규모확대 의욕이 감퇴되고, 폐업 등으로 인한 생산감소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養豚**